

제4강 금강경 독해

(1교시)

◆불교와 사회, 정신분석

※학습목표: 불교의 사회참여와 정신분석적 가능성을 살핀다.

▲불교와 사회 참여

-종교가 사회에 개입하는 경우는 많다. 하지만 종교는 인간을 자유롭게 해왔다기보다는 속박해 왔다. 오히려 가능성을 살펴야 할 것은 개입이 아니라 참여이다.

-기본적으로 종교는 개인적이다.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무제와 관련을 가질 때, 그 교리 내에서 무엇을 찾을 것이 아니라, 교리에 대한 재해석 작업이 필요하다.

▲불교의 정신분석학적 측면

-불교적 명상의 공통점은 지관(止觀)의 명상이라는 점이다.

-지는 삼매로서 모든 마음의 활동이 머무는 상태다. 이 상태가 대개의 명상 목표다. 그런데 불교의 명상은 지가 목적이 아니라 관이 목표다. 관은 깨어있는 상태다. 다시 말해 관은 심층의식을 살피는 것이다. 그래서 지관은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어 최대한 고요하면서도 깨어있는 상태다. 즉 위식 표면의 욕망은 지를 통해서 없앨 수 있고, 잠재적 상태의 욕망 뿌리는 관을 통해서 없앤다.

(2교시)

◆금강경의 설명

※학습목표: 금강경 독해에 앞서 금강경의 외적 의미를 알아본다.

▲금강경을 택한 이유

- 동아시아 전통에서 금강경의 입지는 중요하다. 선불교의 연원이자 선의 핵심을 잘 나타내고 있다.
- 산스크리트본과 한역본이 둘 다 남아있다. 두 본의 차이를 파악하면 금강경 이해에 도움이 된다.

▲불경의 특징

- 경은 부처의 가르침이고, 율은 부처가 제정한 승려들의 율법이다. 그리고 론은 부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의 모음이다. 금강경은 경에 속한다.
- 성경은 신의 말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다. 그 내용이 진리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의미 변화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. 그러나 불경은 깨달음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.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기록이 아니라 깨달음의 경험이다.
- 깨달음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의 자유가 처음부터 열려 있다.

▲금강경의 이름

- 금강경의 산스크리트어는 Vajrācchedika prajñāpramita sūtra다. 한역도 본래 금강반야바라밀다경이다.
- Vajrā는 금강, cchedika는 자르다, prajña는 통찰력이다. 그래서 그 의미는 금강(다이아몬드)조차도 자를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경전이다.
- 반야사상은 공의 사상이다. 공사상은 삶과 사물의 공성을 알아보고 본성이 공성임을 안다는 것이다. 반야사상은 대승불교의 핵심이며 금강경은 반야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전이다.

▲금강경의 서두

- 「如是我聞」여시아문
- Evam Mayā sūtram으로 Thus I have heard이다.
- 여기서의 나는 아난/ānanda이다.
- 경전의 실제성을 증명하는 구절이다.

(3교시)

◆금강경 독해

※학습목표: 금강경 독해로 불교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.

▲시,공적 배경

「一時佛在舍衛國 祇樹給孤獨園 與大比丘衆 千二百五十人俱」

-일시불재사위국 기수급고독원 여대비구중 천이백오십인구

-한 때에 부처가 사위성 제타동산에 있는 급고독원에 있을 때 비구 천이백오십 인의 사람과 함께 하셨다.

-시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장소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. 반면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기록을 보면 보통 시간이 매우 정확히 기록된다. 이는 사물을 기억하는 방식의 차이다. 문화마다 다른 중요한 기준과 서술의 차이로 보면 된다.

▲아침 일을 마치는 장면

「爾時 世尊 食時 着衣持鉢 入舍衛大城乞食 於其城中 次第乞已 還至本處 飯食訖 收衣鉢 洗足已 敷座而坐」

-이시 세존 식시 착의지발 입사위대성걸식 어기성중 차제걸이 환지본처 반사홀 수의발 세족이 부좌이좌.

-세존이 식사 때 옷을 입고 발우를 들고 사위대성에 들어가 걸식을 하는데, 그 성에서 차례로 걸식을 마친 후, 원래 장소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의발을 걸고 손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았다.

-산스크리트어에서는 먹고 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있다. 중국어로 번역될 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.

▲수보리가 정중하게 묻다

「時長老須菩提 在大衆中 卽從座起 偏袒右肩 右膝着地 合掌恭敬 而白佛言」

-시장로수보리 재대중중 즉중좌기 편단우견 우슬착지 합장공경 이백불언

-이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오른 쪽 어깨의 옷을 걷어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공경하며 부처에게 말했다.

-산스크리트어본에서는 부처의 발에 머리를 대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았다고 한다.